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사건 전개에서 문맥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함. → 입원하기 전에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었지만 효과가 없어서 병원으로 왔음을 짐작할 수 있음.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도 지어 올 일이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침대 위에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나 앉은 병인은,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숨결은 차지마는 말소리도 또랑또랑하다. 병인은 어제부터 새판으로, 입원하기 전에 대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물린 한의를 병원 속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제쳐 놓고 자기의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멩호더러 꼭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두 번을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에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툭 건드리기만 하여도 끊어질 듯한 신경만 날카로운 병인은,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의사는 이따 저녁때 불러오기로 하죠.”

오늘도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 걸어서 왕복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들어선 멩호는, 옷통을 벗어 놓고 땀을 들이며 찬찬히 병인을 달랬다.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르는 병자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어쨌든 ㉠한약 처방 급한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 하겠는데, 또 판소리가 나올까 보아 어린이가 달래듯 달래려는 것이었다.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 가지구 나가야지 이대루 나갔다간 당장 숨이 맥혀 죽어!.....”

남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저의 대중만 치고 저의 형편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 내어 보았으나, 숨결이 또다시 되어지며 말은 입속에서 어려워져 버렸다.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게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동정이 한 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나, 한편에 있어서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육체의 고통이 극도에 오를수록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고, 자기를 돌려내고 민주를 대는 듯싶어 고까운 생각이 들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퇴원 놀래*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인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병자의 반대로 미루미루하여 오던 것을,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거기 따라 멩호가 부쩍 우겨서, 당자도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 정신이 말짱할 때는 옆의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더껍더껍 많아지는 걱정도 하고 죽은 뒤의 장비 마련까지 하던 사람이, 병세가 차차 침중하여지고 육체적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북아쳐 대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이었다. 그것은 병원에 누웠댔자 별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마는, 다만 하나 ㉡주사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이었다. 하마터면 뇌일혈로 인신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백지장 한 겹 시간에 요행히 붙들어서 한약으로 머리의 피를 내려앉게 하여는 놓았었지만,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이백 얼마라는 혈압을 오륙십 그램씩 두 번이나 쥐어짜듯이 하여 피를 빼고, 무슨 주사인지 미국 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연거푸 놓고 한 덕에 간신히 부지를 하여 온 머릿속이요 심장이다. 거기다가 신장염이 겹들어서 부증이 들쭉날쭉하다가, 어쩔뎡하여 부기가 내리고 구미가 불기 시작을 하여 한동안 수미(愁眉)를 찡뎡 것이나,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마취제와 강심제의 농락으로 꺼져 가는 등잔의 심을 돋우고 돋우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뿐이었다.

→ 병인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 가족들: 병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원을 시키려고 함.
→ 삶에 집착
→ 가족들 때문에 이질수없이 퇴원결정
→ 병인의 생명을 간신히 면장시키는 수단

만경중 (경중중!)
(어제부터 또다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 → 병인의 심리를 독자에게 전달

멍호 설득(병인)

문맥과하여 내는 선

몹시 귀찮아하는 (선생님? 야호하)

죽을대념김 but 시환하는 X

뇌내동원 정신을 잃은상태

심장기능을 리복시키는 약

최소한하게 X. 목숨만 이어가는정도

○심 = 연약...

(중략)

집안살림에 쓰는 물건

신체를 모셔 들인 방에는 불은 때어 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병원에서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 방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발상 전의 과수택은 옆방에서 부리나케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명호가 오늘 만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 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다.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줄라서 먹으려던 것이다. 과수택은 **컵 속에 넣은 물 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세를 붙이고 받아 둔 성수였다. **☞ 교회의 방식**

병인죽음 = 더이상 필요 X

발치계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를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과수택은

☞ 과수택이 교회의 방식으로 예를 포함걸 보고 하는 말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삼일장이나 오일장이나 하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라신 유연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야 삼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葬費)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장례식을 최대한 빨리 치루고자 함.

“그야 우리 형세에 삼일장이죠마는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루 들어가시겠됐는데요.”

명호: 삼일장 O 화장 O
과수택: 삼일장 O 화장 X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러하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혹은 이 과수택도 뒤미처 들어갈 테고 보니까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렇지도 모르나,**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는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 달라느니 하는 유연도 하거든,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 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 보아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병인이 매장을 더 원했음 것이라는 가족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

“말이 삼 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구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

호상차지*의 걱정이었다.

초상회하는데 문장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낼피는 사람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값만 해두 두 대에 사만 원은 예산을 처야 할걸.”

홍제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오륙천 원에 너끈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찾삿이 사만 원 예산이라니 엄청난는 말눈치였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 **호상차지조차도 화장 찬성**

죽은 사람의 입장보다 산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르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 하여간 하룻밤 하룻낮을 안팎에서 복작대고 들볶아쳐서 제시간에 성복제도 지냈다. 성복제를 지내고 나니까, 앓아누웠던 명호의 재종형이 지팡이를 짚고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처음 지내는) 제사 육촌형

“허!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쉼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 들고 염불을 시작하였다.** 한 식경이나 옆

복교의 방식

밥먹을동안



관위에 씌우는 명정
↳ 죽은 사람의 관자·성씨 등을 적은 기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염불을 끝마치고는, 이 늙은이는 품에서 흠척흠척하여 백지에 기름히 싼 봉지를 꺼내서 관상명정을 쳐들고 관 위에 끼워 놓은 것은 손수 베끼고 ^{복잡한 운구} 경문인지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나가서도 하관할 때 폐백과 함께 이 종이 봉지도 횡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상도} 않았다. 성수에 ^다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불타의 대자대비한 공덕에 ^{부서} 안겨 ^{어선} ^{입적과} ^던 안온히 잠들지 모르나,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이나 향의 를 기을안 데에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

부서라 보살의 자비만큼
자비가 넓고 크다

풍자. 비판
b/c 천주교 VS 불교

- 염상성, 「임종」

주제: 죽음을 앞둔 인간의 생존분노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

- * 민주를 대는: 몹시 귀찮아하는.
- * 놀래: 놀래. 여기서는 '논의'의 뜻으로 보임.
- * 호상차지: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사람.

임종

→ 세태소설 (해방이후 4~50년)

before

병인중심
: 생존투쟁

after

가족중심
천주교/불교
(유교적 방식의 퇴장)
" 5일장, 매장

20001-0146

0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인은 자신을 진료했던 한의사를 한결같이 신뢰했다. X
- ② 병인은 입원료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여 퇴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X
- ③ 명호는 병인에게 퇴원한 후에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자고 제안했다. ✓
- ④ 명호는 출장 간 한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를 동안 시골까지 찾아갔다. X
- ⑤ 의사는 병인이 급한 고비는 넘겼으므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X

* 병인
= 기존의 가치
= 기존의 질서

세태를 드러내는부분
* 한 방 > 양방 (한의사)
* 전통 VS 현대 공존·갈등
(자꾸집에가려함 : 집밖에서 죽는건 객사!)
(but 현대사라는 주르러 병원감)

20001-0147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약: 생득의 수단. 아직 준비하지 X

- ① ㉠: 병인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명호가 애써 준비한 것이다. ✓
- ② ㉡: 병인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것이다. ✓
- ③ ㉢: 병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방입을 드러내는 것이다. ✓
- ④ ㉣: 병인이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이라고 유족들이 짐작하는 곳이다. ✓
- ⑤ ㉤: 병인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명호의 자중형이 직접 써서 준비한 것이다. ✓



20001-0148

03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종」은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병자의 모습을 통해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례 상황에서 진심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보다는 산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의 소임을 다한 것에 자기 위안을 삼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 ①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키려고 병자를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려는’ 명호의 행위를 통해 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② 동정이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다고 여기는 병자의 모습을 통해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을 느낄 수 있군.
- ③ ‘컵 속에 넣은 물 종지를 찾아내서’ 성수를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리는 과수덕의 행동과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염불을’ 하는 재종형의 모습은 제각기의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임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군.
- ④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두 아버님 곁으루 들어가시겠됐는데요.’라는 말을 통해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보다 산 사람들의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관계X*
- ⑤ ‘홍제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오륙천 원’인데 *○* ‘참사만 사만 원이 드는 것을 엄청나다고 여기는 호상차지의 생각을 통해 경제적 사정을 우선시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군.